

# 휴가철 빈집 절도 기승

## 광주 한 아파트서 3일간 6가구 털려

### 경찰 속수무책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광주 지역 곳곳에서 절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일부터 8일말까지를 '하절기 특별방범활동기간'으로 정하고 방범활동을 강화했지만, 날뛰는 도둑을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

◇골프채·귀금속 등 '씩살이'=지난 18일 새벽 4시께 서구 금호동 J아파트 안모(65)씨의 집에 절도범이 들어와 골프채 등을 몰래 가져가는 등 이 아파트에서만 지난 16일부터 사흘 동안 모두 6가구가 절도 피해를 입었다.

이들 피해 가구는 당시 가족들이 모두 잠을 자고 있어 인명피해 등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자칫 단순 절도가 강도 등의 인명피해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 아파트 주민

들이 크게 불안해 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주민들은 잇따른 절도를 보다 못해 야구 방망이 등을 구입, 집에 놓아두고 가족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5시40분께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H아파트 박모(34)씨 집에 도둑이 침입해 시가 1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훔쳐갔고, 앞서 17일 새벽 1시께는 광산구 송정동 H아파트 김모(17)군의 집에 도둑이 들어 금반지 등 시가 2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갔다.

지난 15일에는 서구 풍암동 B아파트 오모(여·38)씨의 집에 도둑이 들어 현금 30만원이 든 손가방을 훔쳐 달아났다.

지난 9일엔 새벽 1시~6시 사이 광산구 송정동 K아파트 상가 1층 식당에 누군가 침입, 식당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만원이 든 금고를 훔쳐갔으며

4일에도 광산구 송정동 한 상점에 도둑이 들어 책상 서랍에 있던 현금 150만원과 상품권 150만원 등 300만원을 훔쳐갔다.

◇경찰 휴가철 비상근무=경찰은 휴가철을 맞아 비상근무에 나서는 등 비상이 걸렸다. 그러나 최근 광주시 내에서 일어난 아파트나 주택 절도사건의 범인은 붙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 아파트에서 사흘동안 6건의 절도사건이 잇따랐지만 경찰은 '주민의 신고가 늦었다'며 치안공백에 따른 비난을 피하고 있다.

광주시 서구 정모(37)씨는 "가마솥 더위에도 불안감에 아파트 발코니 문을 열어 둘 수가 없다. 좀 늦은 시간에 귀가하면 아이들이 수시로 전화해 집에 빨리 오라고 한다"며 "경찰의 사후약방문식 절도 사건 대응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조선대 설립기념탑 훼손

## 계단·난간 대리석 뜯겨

조선대 학원민주화 운동의 상징 조형물이 누군가에 의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조선대에 따르면 교내 정문 인근의 설립기념탑으로 향하는 계단과 난간의 대리석 일부가 뜯겨진 채로 발견됐다. 현장에는 22일 현재까지 깨진 대리석 수십여 조각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조선대측은 설립기념탑 훼손은 지난 주말과 휴일(19~20일)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선대 관계자는 "설립기념탑은 인적이 드문 곳인 데다 두 차례에 걸쳐 훼손됐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행위라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학교법인 정상화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학교 측의 정상화 노력을 옹호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설립기념탑은 박정웅 전 총장 및 일가를 학교 운영에서 물러나게 했던 1988년 1·8민주화운동 이후 7만2천여 설립 동지들을 기리기 위해 모금운동을 거쳐 지난 1994년 12월 5일 조성됐다.

한편, 1988년부터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 온 조선대 법인은 올 초부터 본격적인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에 들어갔으며 정상화 과정에서 구재단 측은 직전 이사의 권리를 들어 정이사 구성에 자신들의 몫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지난 19, 20일 두차례에 걸쳐 누군가에 의해 심하게 훼손된 조선대 설립기념탑 계단과 난간.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니원침 (7563) 김종두



나주서 자동차 제동거리 실험의 속도 변화와 마찰 계수 등을 측정했다.

자동차 급제동 이후 제동거리 등을 측정하는 전국 최초의 합동 실험이 22일 나주시 산포면 비상할주로에서 열렸다. 경찰과 도로교통안전공단이 함께 실시한 이날 실험에서는 일정 속도로 주행하다 급정차한 이후 자동차의 속도 변화와 마찰 계수 등을 측정했다.

/위지량기자 jrwi@kwangju.co.kr

## '촛불시위' 광주 첫 사법처리

### '먹물 총' 30대 입건

미국산 최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도중 경찰관들에게 '먹물 총 발사'를 지시했던 전 한총련 의장이 불구속 입건됐다. 촛불시위와 관련해 광주·전남에서 사법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 북부경찰은 22일 한나라당 광

주·전남 시·도 당사 앞을 지키고 있는 경찰과 전·의경에게 먹물이 담긴 물총을 쏘도록 초등학생들에게 지시한 전 한총련 의장 김모(30)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직접 '먹물 총'을 쏘지는 않았지만, 어린 학생들을 시켜서 쏘게 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판단했다"면서

"그러나 집시법 위반의 경우는 광주 촛불집회를 불법집회로 간주하기 예매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퍼포먼스 성격의 '먹물 총' 사건을 경찰이 사법처리함에 따라 평화집회로 일관한 광주 촛불집회에 사정기관의 칼날이 겨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고 있다.

촛불집회를 주도해 온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 측은 강력히 반발하는 한편, 회의를 거쳐 향후 촛불집회와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창고서 기름통 폭발

### 무안서 50대男 숨져

22일 오후 3시30분께 무안군 운남면 연리 정모(56)씨가 운영하는 농기계 보관 창고에서 기름통이 폭발해 정씨가 숨지고 손자(11)가 다쳤다. 이 사고로 창고 내부 15㎡를 태워 5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5분 만에 진화됐다.

/무안=대성수기자 dss@kwangju.co.kr

## 사학분쟁조정위 비공개 모임

### 오늘 오후 조선대 정상화 등 논의 이사 선임 가이드 라인 드러날 듯

월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조선대 법인의 이사진 공백 사태가 3주를 넘기고 있는 가운데 23일 사학분쟁조정위원들이 정기·임시회의가 아닌 비공개 모임을 갖기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선대 법인은 조선대를 비롯한 중·고교 등 산하 교육기관의 원만한 2학기 학사 운영을 위해 늦어도 8월 내에는 이사 선임이 돼야 한다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속한 심의·의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학분쟁조정위는 23일 오전 10시 일부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과 관련한 임시회의를 가진 뒤 오후에는 장소를 옮겨 조선대 등 정상화 추진 법인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과학기술부 측도 최근 8월이 끝나기 전에는 이사를 선임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만큼 비공개로 진행될 이날 모임에서 이사 선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조선대 이상열 교수평의회 의장 등 조선대 관계자 3명은 23일 오전 11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사학분쟁조정위와 인접한 교육과학기술부 건물 후문에서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이에 앞서 21일에는 조선대를 비롯한 세종대, 상지대, 광운대 등 정상화를 추진 중인 4개 대학 총학생회가 사학분쟁조정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개 대학 총학생회 연합은 현 사태의 심각성을 공유하며 향후 천막농성, 기자회견 등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전개해 부패재단 복귀저지와 조속한 법인 정상화를 쟁취하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다 좋은 건국·산업자금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만행  
▶ 사물포시 : 02) 3445-0943  
▶ 나주광원 : 061) 337-0571

### 모텔 생활 30대 女 1년간 생필품 훔쳐

○모텔에서 생활해오던 30대 여성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마트 등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생필품 등을 훔쳐오다 경찰에 걸렸다.

○22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홍모(여·36)씨는 지난 3월 하순께 광주시 동구 계림동 K마트에서 통조림과 계란, 햄을 훔치는 등 지난해 중순부터 최근까지 19차례에 걸쳐 19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훔쳐왔다는 것.

○절도전과 6범인 홍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부터 직업이 없는 남편과 모텔에서 장기 투숙해 왔는데, 생활이 어려워지자 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고 진술.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훔치기 생필품 이외에도 염색약과 비듬치료제, 시계 등을 훔친 것으로 봐서 '생활고'는 핑계일 가능성이 크다"며 "습관적으로 물건을 훔치는 '도벽증'에 가까운 것 같다"고 설명.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